

선사시대 암각화~조선민화 180점

우리그림 백가지

박영대 지음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는 누구일까.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가 고흐를 꼽았다고 한다. 서양그림에 대해서는 각종 미술 유파와 역사 뿐 아니라 누구의 작품인지를 꼭꼭 맞춰보면서 정작 우리 그림을 대하면 할 말이 적어진다. 이종섭이나 박수근 같은 유명한 근대 화가의 작품이 아니라 고려, 조선시대의 그림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현암사의 '우리 그림 알아야 할' 시리즈 18번째 책 <우리 그림 백가지>는 한국화가 박영대 씨가 선사시대 암각화에서 조선 말기 민화에 이르는 180점의 그림을 뽑아 94개의 이야기를 덧붙인 것이다.

우리는 옛것을 통해 우리 것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는 힘을 얻는다. 옛 그림을 보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을 것이



◀이성좌 작 '나한상'. 종이에 수묵. 호암미술관 소장.

고 너그러운 마음'은 김명국의 '달마도'와 김홍도의 '기우서인도' 등 조선 중기의 그림을 소개했다.

4장에서는 '조선의 맛과 멋'에서는 윤두서의 '노승도'와 신윤복의 '미인도' 등 조선 후기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5장 '그림의 깊이와 넓이'에서는 장승업의 '고사세동도', 김정희의 '세한도' 등 조선 말기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지은이는 작가와 그림이 그려진 시대적 배경, 그림에 대한 꼼꼼한 설명으로 우리 그림에 녹아 있는 강한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특히 장엄과 예배의 대상으로 여겼던 신라시대의 변상도와 극락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관경변상도', 고려불화의 백미로 꼽히는 수월관음도를 등을 '그림'으로 바라보고, 어떤 내용을 형상화했는지 어떻게 감상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그림도 눈길을 끈다. 남의 집 지은이였으나 그림 실력을 인정받아 중앙에서 활동한 이상좌의 '나한상'은 조선 중기의 문신 허목이

작가·작품·시대적인 배경 등 설명 고승 진영·변상도·불화 조명

다. 1장 '맑고 고요한 빛'은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그림을 모았다. 반구대암각화와 고분벽화, 백제의 산수문전을 비롯해 통일신라시대의 화엄경변상도와 고려시대 불화를 담고 있다. 2장 '살 혹은 꿈의 기록'은 안견의 '몽유도원도', 신사임당의 '초충도' 등 조선 초기 작품을, 3장 '밖

'백 세대가 지난 후라도 이 그림을 알아보는 이가 있어 능히 사랑하게 될 것'이라 평했을 만큼 현대적인 느낌을 준다. 윤두서가 실제 노승을 집안에 불러 놓고 그렸다는 '노승도'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자자미상의 '서산대사 초상'은 한 장의 그림으로 고승대덕의 청정한 내면세계를 보여준다. 값 2만5천원.

출판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ha.com

시선 원성 글/사진



동승의 작가 원성 스님이 어머니 금강 스님과 함께 인도로 떠났다. 이번에는 그림이 아닌 사진에 인도의 풍광을 담아왔다. <시선>이래는 원성 스님이 인도에서 찍은 사진과 불교 성지를 순례한 느낌을 적은 글을 함께 실은 책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한 룸비니 동산과 가장 오래 기거했던 기원정사, 최초의 불교사원 죽림정사 등 불교 성지와 그곳에서 만난 리사꾼과 차 파는 아저씨, 옥수수 파는 소년 등의 모습을 정감 어린 시선으로 담아냈다. 동승을 그려온 화가답게 그의 시선은 인

성지순례중 느낌 인도풍광 함께 실어

도의 아이들에게 오래 머문다.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미소 짓는 '아들 스님'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 전기법수와 쌀을 챙기는 '어머니 스님'이 도반이 되어 떠난 순례길에서 인도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값 9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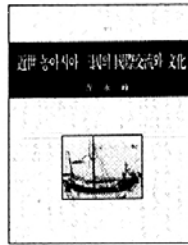
화산 용주사

효행 도량으로 유명한 화산 용주사는 정조가 비명에 숨진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고자 묘를 화산으로 옮긴 후 1790년 세운 능사(陵寺)로, 국보 10호인 범종과 단원 김홍도가 그렸다고 전하는 후불탱화 등을 간직하고 있다.

문예마당이 30권을 기획하고 펴내는 가족과 함께 떠나는 사찰여행 일곱 번째 권인 <화산 용주사>는 용주사의 창건 유래와 설화, 가람배치, 용주사의 말사인 봉녕사와 용주사 주변의 볼거리를 소개하고 있다. 값 4천원.

근세 동아시아 삼국의 ...

조영록 지음



교류사라는 관점에서 조선시대 불교와 명대 불교를 비교한 지은이는 '유불 합일'에서 공통점을 찾는다. 하지만 차이는 있다. 명나라가 성리학을 대도(大道)라 하여 관학으로 삼으면서도 불교와 도교를 소도(小道)로 부르며 적극 수용한 반면, 조선시대 사대부는 성리학 이외의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교류사 관점에서 조선·명 불교 비교

조선과 명나라는 여러 면에서 닮은꼴이다. 성리학을 지국 이념으로 삼았고, 그 결과 '불교의 쇠퇴기'란 표현이 어색하지 않은 것도 한 부분이다. 하지만 유교를 신봉하면서도 두 나라 사대부의 사상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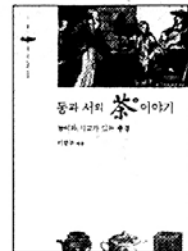
조영록 전 동국대 사학과 교수가 최근 펴낸 <근세 동아시아 삼국의 국제교류와 문화>(지식산업사)는 명대 정치사상사 전공인 글쓴이가 한·중·일 문화 교류와 관련해 그동안 발표한 논문을 모은 책이다.

다. 지은이는 조선시대 대표적 승려인 사명당 휴정을 '유불 합일론자'로 규정하면서도 이는 유가의 질서와 편견으로부터 불교를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고 파악한다.

'동아시아 삼국의 국제교류와 교류' '조선 사대부 사회의 이념과 동아시아' '근세 동아시아 유불의 갈등과 조화' 등 3부로 구성돼 있으며 중국 내 한국관련 불적 담사기를 부록으로 실었다. 값 1만8천원. 권형진 기자 jiny@buddhaha.com

동과 서의 차이 이야기

이광주 지음



산지를 알아맞춰 상을 주는 상미(尙味) 경기와 차의 맛과 향, 색과 형태를 비교해 우열을 가리는 투차(鬪茶) 놀이가 유행했다.

유럽에 차와 커피가 등장하기 전의 대표적인 기호품은 와인과 맥주였다. 당시 파리는 연간 100일의 페스티벌로 시민들이 술독에 빠진 채 몽롱한 상태로 지냈다. 그런데 차와 커피가

중국茶詩 등 차에 얽힌 이야기

중국 후저우의 태수가 부임길에 차의 달인 육우와 마주쳤다. 육우가 난링(南嶺)의 물을 높이 산다는 것을 안 태수는 육우와 차 한 잔을 마시기 위해 하인들을 난링에 보내 물을 떠오게 했다. 얼마 뒤 가져온 물을 한참 살펴보면 육우는 '이것은 양쯔 강의 물이기는 하되 다른 물이 섞여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심부름꾼이 크게 놀라며 '배가 흔들려 물이 절반가량 쏟아져 버려 다른 강가의 물을 보았다'고 고백한다.

다인들 사이에 좋은 물을 병에 담아 선물하는 풍습은 육우로부터 생겨났다고 한다. 또한 중국에서는 차를 마신 뒤 차 이름과 달인 물의

유럽을 바꿔놓았다. 삼릉과 선술집을 카페가 대신했다. 중세적인 칼과 술의 전사(戰士)문화에 종지부를 찍고 유럽인들이 순식간에 교양인으로 변모하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우아함을 지닌 고급 사교문화의 탄생을 의미한다.

<동과 서의 차이 이야기>를 지은 이광주 교수(인제대)는 양 문명의 차문화 특징으로 동양은 놀이, 서양은 사교를 든다. 한가로움과 향차를 노래한 중국의 다시(茶詩), 일본 다도의 미학, 세계적 보험회사인 로이스사의 이름이 1680년 '로이스 커피 하우스'에서 유래했다는 등의 이야기거리들이 가득해 책 읽는 즐거움을 더해준다. 값 2만원.

스테디셀러 다키읽기

어린이 천수경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는 무슨 뜻일까? '신묘 장구대다라니'와 '참회진언'은 왜 외워야 하는 걸까? 아니, 그 까닭은 몰라도 아이들은 '수리수리 마하수리' 만으로도 즐거워한다. 그 즐거움을 불교에 대한 길잡이로 삼을 수는 없을까? 어린이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쉽고 재미있게 전할 수 있다는 장점에 불구하고, 어린이 불서 출판은 그리 활발하지 않다. 출판 비용이 일반 단행본에 비해 월등히 많은데도 판매는 저조하기 때문이다.

불광출판사가 펴내는 어린이 불서 '꿈나무' 시리즈 중 <어린이 천수경>은 동국대학교 김호성 교수가 글을 쓰고 이정문 씨가 그림을 그린 책이다. 머리말에서 지적한 대로 '어린이들이 책을 잘 안 읽고, 동시는 더욱 안 읽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어린이들에게 천수경을 읽게 할까'를 고민한 지은이가 천수경의 내용을 동시로 풀이했다.

'천수경 이야기' 100만인 읽기운동을 펼쳐며 천수경 신행운동을 펼친 지은이는 천수경을 한글로 옮기고 1992년에



내용 동시로 풀이 진언 외우는 까닭 일화 들어 설명

는 <천수경이야기> 민족새를, 94년에는 <어린이 천수경>을 펴냈다. 또한 천수경에 입각한 참회진언인 '천수예람'을 고안하기도 했다.

천수경은 관세음보살이 부처님의 허락을 받고 모든 중생을 인락케 하고, 장수와 풍요를 얻게 하며 일체 청정한 법과 모든 공덕을 증장시키기 위해 설법한 내용은 담은 것이다. 이 다라니를 독송하고 지키면 일체 업장이 소멸되고 일체의 귀신이 침입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여 오늘날 일반 신자들이 가장 많이 독송하는 경전이기도 하다.

지은이는 책에서 천수경의 내용과 진언을 외우는 까닭을 여러 일화를 들어 설명한다. 재미있는 우화에 이정문 씨의 삽화가 함께 엮여져 어린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읽으며 천수경을 익힐 수 있다.

또 '한자공부' 란에서는 경전에 나타나는 한자의 뜻을 적고, '도움말'을 두어 천수경 본문이나 동시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다. 아이와 어린이 함께, 또는 어른이 읽어주어도 재미있을 책이다. 값 5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책방 여식어린 집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마음은 없다	데이비드 커먼	탐구사
2	화(Anger)	딕 낫한	명진출판사
3	영가천도	효림	좋은인연
4	신묘장구대다라니강해	임근동	솔바람
5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류시화	김영사
6	산중에서 길을 물었더니	서화동	은행나무
7	성철스님 시공이야기	원택	김영사
8	극락은 있다	관정	벗대의마을
9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딕 낫한	김영사
10	찾간 속에 달이 뜨네	지운	다산출판사

도서 안내: (02)737-0695

법안명상기공지상강좌

변형국판, 72쪽, 값: 8,300원
기공과 명상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수련안내서.

만국역리학

산국판, 112쪽, 값: 6,300원
역의 원리를 통달해 9종 역리를 창안하고 만국인의 운세를 그 나라의 말과 글로 푸는 9종 운세 풀이서.

이름운세풀이

산국판, 160쪽, 값: 7,200원
이 책을 보고 자신의 이름과 상호의 운세를 풀어보세요.
* 대한민국 월드컵 본선 1차전 승리 예상 적중 69쪽

색즉시공즉시색

산국판, 112쪽, 값: 5,400원
시와 경과 사진의 조화, 자연과 인간 그리고 깨달음의 조화.

종횡무진

산국판, 192쪽, 값: 6,800원
최초적 지혜로 현상을 바로보고 진실을 일깨워주는 21세기 지성인의 교양서



1 만국역리학 보덕 지음

3 ▲ 풀림 정화사

6 ▲ 풀림 정화사

8 ▲ 풀림 정화사

21세기 맞아 세계인이 함께 보는 이름운세풀이

2002 KOREA 16

▲ 풀림 정화사

색 즉 시 공 즉 시 색

▲ 풀림 정화사